

박찬일의 '밥 먹고 합시다'



예전에 목포에 들렀다

예전에 목포에 들렀을 때 일이다. 유달산에 올라 보니 삼학도가 그리 작은 섬인지, 그것도 섬답게(?)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고 육지에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하다는 것도 의외였다.

유달산에는 등산로에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는데, 구슬픈 노랫가락이 흘러나왔다. 알다시피 이난영의 노래다. 나는 이난영이 활약하던 동시대 사랍은 아니지만, 일찍이 그 목소리를 라디오로 자주 들었다. 흔히 한 맺힌 창법이라고들 하는데, 나는 좀 다르게 생각했다. 뒤편까 중성적이고 힘이 느껴지는 목소리가 기억에 오래 남았다. 당시 창법은 대체로 구슬픈거나 지나치게 발랄한 타입이 대중을 이루었는데, 이난영은 그런 보편적인 창법 저편에 혼자 있는 것 같았다. 야구광인 나는 나중에 해태타이거즈 야구팀의 응원가로 운동장에 울려 퍼지는 걸 많이 들었다. 특히, 목포에서 김대중 선생이 유세를 할 때도 이 노래가 당연히, 요즘 유행하는 말로 '폐창'으로 불렀다고 한다.

유달산을 내려와서 걷는데, 구시가의 옛 초원호텔 근처 어느 노래방 기기 파는

가게에서 주인 혼자 앉아 역시 '목포의 눈물'을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는 매우 빼어난 목소리를 가진 중년의 사내였다. 목포에서 목포의 눈물은 그저 일상 노래가 된 것 같았다.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지만, 내가 방문했을 무렵 이난영 특집판 소주를 목포에서 팔았다. 그때 이난영의 얼굴 사진을 처음 보았다. 결코 성공한 여가수 같지 않은, 어둡고 사연 깊은 표정의 그이가 소주병 뒤에 새겨져 있었다. 이난영의 사진이 붙어 있는 소주에는 역시 목포의 안주가 제격이었다. 삭은 흥어에 곁들였다.

목포의 오래된 주점 '덕인주점'의 사장님은 "김대중 선생이 연설할 때면 저 앞이 가득 차고 우리 가게에도 술 마실 겸 구경 나온 술꾼들이 인파를 피הל 진을 치고 있었다"고 술회했다. 이난영 떠창을 안주로 마시는 흥어와 소주였다면 대단했을 것이다.

한국 소주는 참 말도 많고 사연도 깊다. 화학주네 어찌네 하는 말부터 서민의 벗이라는 애칭, 소주값이 오르더라도 하연 여론이 들끓고 언론이 요란했을 정

도다. 우리가 먹는 소주는 세계에서 알코올 도수 기준으로 제일 싼 축에 들어간다는 말이 있다. 소주 한 병이 고작 소매가 2천 원을 넘지 않으니 정부가 알코올 중독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하는 경우도 있다. 제법 센 증류주인데 생산 비용이 낮고 거기에다 나라에서 서민 술이라고 세금을 적게 붙이기 때문이다. 나라에서도 여러 번 세금 체계를 손보면서 소주 주세를 올릴 계획을 내비친 적이 있지만, 매번 여론의 벽에 부딪쳐 사그들었다. 소주 먹는 낙도 없이 서민들은 무슨 재미로 사느냐 하는 항의가 빗발쳤다. 예전엔 세무서나 언론사에 전화해 걸었다 하는데, 요즘이면 청와대 게시판이 난리 날 듯하다.

옛날 신문은 보니 지금은 두꺼비로 유명한, 시장 지배적인 소주가 원숭이표를 썼다는 흥미로운 대목도 나온다. 그러니까 계속 원숭이를 썼다면 서울 사람들이 흔히 술 마시지는 은어로 사용하는 '두꺼비 한 눈 까자'는 말은 원숭이가 대체했을 것이다. 소주에 대한 과거 신문 기사는 그다지 좋은 얘기만 나오지 않는다. 지역 할당제와 정치 자금 제공설, 가짜

소주(지금 소주도 싼 데 그걸 가짜를 만들텐다!), 그리고 언제나 2등을 멀리 따들리던 1등 소주의 영화가 사라진 현재의 얘기까지 참 많은 사연을 역사에 담고 있다.

호남선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갈 때, 예전에는 기차에서 흥악회 판매원이 소주도 팔았다. 오징어 안주에 소주 마시면서 비둘기호의 그 긴 여정을 견뎌 냈다. 목포와 광주에서 보화로 시작한 소주는 충청도에 들어오면 보배로, 다시 수도권에서는 진로 상표로 바뀌던 신기한 경험이 기억난다. 지역 할당제가 없어져서 이제 서울에서 전국 소주를 다 만날 수 있다. '일새주'며 '경월' (이것은 '처음처럼'이었다), 부산의 '대선'과 마산의 '무학' ('좋은데이'라는 상표를 쓴다), 거기다가 생전 구경하기 어려운 제주도의 소주도 판다. 그러나 역시 지역의 술은 지역에 가서 독특한 안주에 먹어야 제맛이다. 공기가 다르디니까.

목포 시내에서 이난영 특집판 소주를 다시 판다면, 이번에는 무엇을 안주로 먹을까 고민이 된다. 흥어도 좋고, 민어도 좋고. (음식칼럼니스트)

의료칼럼

여름철 눈 관리



강석준 보리안과병원 원장

과유불급(過猶不及). 이번 여름 내내 내리는 비를 보며 든 생각이었다. 올라다 보는 하늘은 늘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이제 그만 좀 내리지 싶을 정도로 지겹다는 생각이 들 무렵, 우리 지역을 할린 수마로 많은 이재민이 생겼고, 막대한 재산 피해를 남겼다.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위축되고, 힘든 일상을 보내는 모두에게 올해 여름은 참 힘든 해로 기억이 될 것 같다.

길고 긴장마 끝에 이제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연일 한낮 기온이 30도가 넘는데, 이렇게 더운 날씨에 강한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면 눈에 여러 가지 안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짧은 시간 동안 강한 자외선에 노출되면 급성으로 자외선 각막염을 일으켜 눈에 심한 통증,

충혈, 이물감, 눈부심, 눈물 증상이 발생한다. 평소 야외에서 생활을 많이 해서 오랜 시간 자외선에 노출되면 결막이 눈동자로 길어 들어가는 군날개, 시력 저하, 밝은 곳에서 흐려지는 백내장, 망막 변성 등이 생길 수 있다.

이때 선글라스를 착용함으로써 눈에 들어오는 강한 빛을 막아 눈부심을 막고, 해로운 자외선을 차단하면 안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선글라스의 가장 적절한 컬러 농도는 75-80% 정도로 눈이 들어다 보일 정도가 적당하다. 자외선 차단 기능은 없고 눈동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렌즈 색깔이 진한 검은색 선글라스는 단지 눈에 들어오는 빛의 총량을 감소시켜 눈부심을 줄여 줄 수 있지만, 오히려 동공이 커지면서 눈 안으로 자외선을 더 많이 받게 되므로 각막염, 백내장, 망막 변성 등의 자외선 유발 안질환 발생이 증가할 수 있다.

요즘 같은 여름 장마철 전후에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면 바이러스를 비롯한 미생물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열대야 등으로 사람들의 생체 리듬이 깨지면 서방어 기능을 하는 면역력이 약해지게 된다. 또한 땀이 많이 분비되어 깨끗하

지 못한 손이나 불결한 수건으로 땀을 닦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손과 수건에 묻어있던 바이러스나 오염물질이 눈에 들어가 눈병을 유발하기도 한다. 그리고 수영장 등 많은 사람이 같이 사용하는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서 전염이 많아지게 된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예년에 비해 대중 이용 시설을 이용하는 비중이 낮아졌지만, 그래도 안심할 수 없다. 주로 전염은 환자가 접촉한 물건을 통해서 옮기게 되는데, 환자에게서 옮긴 바이러스가 붙어 있는 수건·옷 등 매개물을 만졌을 때 전염되기 때문에 눈병에 걸린 환자와 친밀한 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감염될 확률이 높다. 바이러스 중 일부는 마른 상태에서도 4-5주간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버스 및 지하철 손잡이, 문고리, 계단 난간 등을 통한 전염도 조심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주 손을 씻는 습관이다.

중요했던 코로나 확진자가 이번 달 들어 다시 늘어나면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중요성은 더 설명하면 입이 아플 정도다. 이제는 일부 소수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일상화가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마스크를 사용하면서 감기 등의 호흡기 질환은 줄었지만, 상대적으로 안구 건조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 늘었다. 또 야외 활동이 줄어들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TV 등을 시청하는 시간이 늘어나 눈의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대개 코 쪽으로 입김이 나오게 되어 눈으로 올라가 눈을 보호하고 부드럽게 해주는 눈물 막을 약화시켜서 안구 건조증이 심한 분들은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노트북·스마트폰 등의 화면을 오래 집중해 보면 평소보다 눈을 깜박이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로 인해 눈물 증발량이 증가하게 되고, 여기에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오래 틀면 눈이 더욱 건조해진다.

안구 건조증이 생기면 눈이 뻑뻑해지며 시린데, 심하면 두통이 있을 수 있고 눈을 감았다가 뜰 때 통증이 온다. 이럴 때는 불필요한 눈의 사용을 줄이고, 한차 레시 눈을 쉬어 주며 중간중간 눈을 자주 깊게 깜박여 주는 것이 좋다. 그래도 불편하면 안과에서 안과 전문의와 상의해 보기를 권한다.

기고

위드 코로나(With Corona)시대, 시민의 역할



송창영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올해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어느덧 7개월 지났다. 이 기간 동안 국내 주요 뉴스란은 코로나19 관련 소식으로 가득했다. 각종 언론과 미디어에서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즉 코로나19 사태 이후를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누구도 그 시기를 담하지 못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는 코로나 종식 이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으나, 코로나가 종식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어 가고 있고 국내에서도 지역 감염이

자유행에 접어들면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당초로 코로나19가 진정세에서 유행세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19는 계속 우리 주변에 계속 머물 것으로 보이면서 포스트 코로나가 아닌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블랙 스완'의 저자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는 '0.1%의 가능성이 모든 것을 바꾼다'고 했다. 신천대 대구교회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를 시작으로 이태원 클럽발 지역 감염, 대전 방문판매업체, 교회발 집단 감염, 광주 광복사 관련 사례 등 코로나19 이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개개인의 생명과 함께 국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경험들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잘 알게 되었다. 환자가 발생하면 감염 경로를 조기에 파악하여 신속하게 대처해야 더 큰 피해를 막

을 수 있다.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학원 강사의 거짓말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렇듯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역할과 함께 시민의 진정성 있는 참여와 의지가 동반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 환자 발생 현황을 보면 정해진 지역에서 정해진 시기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공기관의 능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재난에 대응하는 형태가 아닌 시민 스스로가 참여하여 재난에 대응하는 시민 주도형 재난 대응 체계가 필수인 시대가 오고 있다.

지금 수도권발 코로나19 재확산이 급속도로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의 역량만으로 현재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엔 무리가 있다. 국민들의 자율적인 방역 참여가 필수 요소다.

재난에 대비해 자율적 의지를 가지고 지역별 재난 대응 체계와 협력적으로 활동하는 미국의 CERT나 독립적 재원을

기반으로 지역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자치 조직으로 자주적 방재 활동을 수행하는 일본의 초나카이카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도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시민의 참여와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현재 상황은 애프터 코로나(After Corona),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가 아닌 코로나와 함께 하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로 흐르고 있다. 감염원이 지속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가족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 도달하지 않도록 단계별 또는 단계와 무관하게 '마스크 착용의 생활화'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따라야 할 것이다.

산발적 집단 감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두더지 잡기식' 감염병의 차단 및 추적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 및 강화해야 하며, 감기가 유행하는 올해 가을과 겨울에 생길 혼란에 대비하여 9월부터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도 반드시 실시해야 할 것이다.

社說

코로나 위기에도 총파업 진료 공백 커진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어제부터 사흘간 집단 휴진에 들어갔다.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는 위기 상황 속에서 최악의 진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어제 새벽까지 막판 협상을 벌여 잠정 합의를 도출했으나 최종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양측이 협의한 내용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의과대학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한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책의 철회 없이는 파업을 중단할 수 없다며 반발해 끝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의협은 당초 예고한 대로 어제부터 '제2차 전국 의사총파업'에 들어갔다. 이번 휴진에는 이미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전공의를 비롯해 전임의, 개원의 등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참여하고 기간도 길어 진료 차질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광주·전남에서는 이날 전남대병

원과 조선대병원, 기동병원, 호원병원의 전공의 98%가 파업에 동참해 일부 부서 진료가 잠정 중단되거나 축소됐다. 광주 지역 개원의들도 947개 병원 중 6.2%인 59곳이 휴진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 95곳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해 즉시 환자 진료에 복귀하라는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하지만 의협은 "의사들의 단체 행동권을 부정하는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가 급속도로 번지는 현 상황에 대해 '전국 확산을 앞둔 폭풍 전야'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를 통한 해법 모색에 나선 것도 이처럼 엄중한 상황을 감안한 것이었다. 한때 이런 재난 시국에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우선해야 할 의사들이 집단 휴진에 돌입한 것은 어떤 이유든 정당화될 수 없다. 정부와 의협은 신속히 실무협의 채널을 재가동해 더 이상의 진료 차질을 막아야 할 것이다.

끊이지 않는 '기아차 취업사기' 대책 없나

기아자동차 취업 사기 사건이 또다시 발생해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기아차 채용을 미끼로 취업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가 390명에 이르고 피해액도 적게는 2000만 원에서 많게는 5000만 원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최근 기아차 광주공장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A목사와 브로커로 추정되는 두 명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A목사는 지난 2018년부터 주변 지인들을 통해 구직자들에게 접근, 수천만 원씩을 뜯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수법도 다양했다. A목사 일당은 '처음부터 정직원을 시켜주겠다' '비정규직으로 시작해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는 등 온갖 감언이설로 꾀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았다.

문제는 이 같은 취업 사기가 어제오늘

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광주 지역에서는 지난 2004년 스포티지 생산라인 증설을 앞두고 노조 간부와 직원·브로커 등 130여 명이 연루된 사건을 시작으로, 2018년 기아차 사내 하청업체 직원·노조 간부 등이 가담한 사기 행각까지 대형 사기 비리가 잇따라 터졌다. 지난 2004년 이후 본사에서 직접 채용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채용 구조를 전면 개선했음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기아차 취업 사기가 끊이지 않는 건 광주·전남에서 최고의 일자리라는 인식 때문이다. 제조업이 열악한 지역에서 고액 연봉을 지급하는 기아차는 선망의 대기업을 넘어, 수천만 원씩을 뜯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수법도 다양했다. A목사 일당은 '처음부터 정직원을 시켜주겠다' '비정규직으로 시작해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는 등 온갖 감언이설로 꾀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았다.

無等鼓

'전방위 예술가'. 아티스트 이자람(41)을 보면 떠오르는 단어다. 어릴 적, '예술아, 할아버지께서 부르셔. 예 하고 달려가면 너 말고 네 아범'하고 노래하던 '꼬마'는 지금 인디그룹 '아마도이자람밴드'에서 노래를 만들고 부르며, 뮤지컬 '서편제'에서 주인공 송화 역으로 열연을 펼치기도 했다.

이 씨는 서울대 국악과 대학원을 거쳐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보유자 송순섭 선생을 사사한 정통 소리꾼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그의 이름을 알린 건 일련의 창작 판소리였다.

판소리와 헤밍웨이

이 씨는 지난 2007년 브레히트의 '사천의 선인'과 '역적어머'과 그 자식들을 판소리로 재구성한 '사천가'와 '역적가'로 국내외에서 화제를 모았다. 국내 문학 작품도 아닌, 해외 문학을 판소리로 만든다. 틀을 깨는 신선한 시도가 궁극해 '필견 리스트'에 넣어두기는 했지만 인터넷의 '짧은 영상' 외에는 좀처럼 접할 기회가 없었다.

며칠 전 이 씨의 창작 판소리를 '드디어' 관람했다. 이번에는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였다. 망망대해에서 청새치와 사

투를 벌이고, 애써 잡은 고기가 상어에게 뜯겨 먹는 장면을 바라보는, '노인의 외로운 싸움'을 판소리로 만나는 경험은 특별했다. 주인공 산티아고의 늠름한 모습을 노래할 때, 고단한 싸움을 마치고 배 고파에 날부러져 잠을 청하는 산티아고를 묘사할 때, 청새치에 날카로운 작살을 꽂을 때, 소년 니콜과의 우정을 이야기할 때, 고수의 북장단에 맞춰 그녀는 한련의 서사를 만들어 냈다. 직접 대본을 쓰고, 작장을 해 120분간 사람의 감정을 쥐락펴락하며

소리를 이어가는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왔다. 무엇보다 멀게만 느껴졌던 판소리가 내게 말을 건네

는 '행복한 순간'을 만난 기쁨이었다. 광주·전남은 '소리의 분향'으로 불린다. '정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점점 잊혀져 가는 '판소리'에 대한 고경관념을 뛰어넘는 멋진 시도들을 우리 지역 젊은 소리꾼들에게서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녀의 '다들 작풍'이 궁금해졌다. 정해진 건 없지만 지금 셰익스피어의 희곡집과 파블로 네루다의 자서전을 읽고 있다는 광주일보 인터뷰를 접하니, 벌써 가슴이 두근거린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